

성령 하나님

God the Holy Spirit

요한복음 14:15-1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월 15일 설교

¹⁵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¹⁶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¹⁷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으로 살자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성령으로 살자”입니다. 같이 외쳐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했는데 “으로”라는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으로”이지만 모음이나 리음으로 끝나면 그냥 “로”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로” 또는 “으로”라는 말의 뜻을 여러 가지로 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입니다. 산으로 가자.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로 가자. 둘째는 원인 또는 이유입니다. 과로로 쓰러졌다. 찬양으로 힘을 많이 얻었다. 셋째는 재료 연장 방편입니다. 칼로 무를 썰었다.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라. 넷째는 신분 또는 자격입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했다. 다섯째는 결과를 가리킵니다. 경기는 우리 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여섯째는 제한을 가리킵니다. 원서가 오늘로 마감되었다.

“성령으로 살자” 할 때는 “으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선 원문을 봐야 되는데 이 원문이 우리말로 옮길 수가 없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프누마티, 갈 5:16, 25). 문법에서 삼격 또는 여격이라 하는 건데 혹시 독일어 하신 분들은 아마 다티프라는 걸 아실 겁니다. 말이 쉬워 삼격이지 뜻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으로”하는 우리말처럼 이 삼격도 쓰임새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 방금 살펴본 “으로”의 여러 가지 뜻을 다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도 원어도 앞으로 계속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이라는 말과 “살자”는 말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려면 우선 성령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보통 “무엇으로 산다” 하면 대개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단이 되겠지요. 그런데 성령이 떡이나 하면 그건 아닙니다. 돈으로 산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경우는 수단이 되겠지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도 그렇게 성령을 수단으로 삼아 산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념으로 산다, 끈기로 산다 할 때처럼 사는 원리, 또는 사는 원동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더 그럴듯하지요? 성령으로 산다 할 때는 “성령의 원리대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어느 쪽인지 앞으로 차차 살피고 오늘은 먼저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처음 쓰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만 줄곧 하셨는데 이제는 사랑의 방향이 뒤집어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내리사랑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이제 방향을 바꾸어 위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건 쉬워도 올라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올라가는 사랑에는 복종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한다면 윗사람을 존경하고 또 윗사람의 뜻을 따라야지요. 자식이 부모 말은 안 들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참말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요 14:31; 15:10). 그 어려운 일을 백 퍼센트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신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미래 시제입니다. 명령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냥 그렇게 될 거라는 말

씀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높으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건 곧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하는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됩니다 (요 14:23도 같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계명이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지요?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약속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걸 전제하지요. 예수 안 믿고서도 예수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힌두교도 가운데 예수를 훌륭한 스승으로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다. 불교인 가운데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으려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어 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가 감사해 나도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도 지키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려는 우리에게 주님은 정말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 하시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어떻게 주님 계명을 지키게 되는지, 곧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보혜사라 옮긴 이 말은 헬라어로 “나란히 소환된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법정에 소환을 받았는데 나하고 같이 소환되어 나를 돕고 보호하고 격려도 해 주고 또 나 대신 말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 14:16, 26; 15:26; 16:7; 요일 2:1). 산상수훈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하실 때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그런 위로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냥 보혜사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보혜사가 되시고 그 다음 성령께서 또 보혜사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여기서 “대언자”가 “보혜사”하고 같은 원문인데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법정,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님이 하늘로 가셔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부탁하신 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시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주심의 유익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달라 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제자들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부활하시겠지만 사십 일 이후에는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보호 아래 지내오던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 제자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바른 길로 인도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곧 떠나신다 하셨을 때 제자들은 슬펐습니다 (요 16:6).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것이 더 낫다 하셨습니다 (요 16:7). 주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성령이 안 오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가셔야 성령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게 더 유익이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더 나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주님도 영원한 하나님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건 주님이 계속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그 약속이 바로 주님의 영,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더 나은 점 두 번째는 성령은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음이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앞에서 “나란히 소환되었다” 할 때의 “나란히”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나란히 계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곁에 계시면서 또한 안에 계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자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점은 다음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은 사실 주님이 처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지난해 구약 통독 때 다 보았지요.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 성령을 부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을 2:28-9).

주님께서도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순절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게 아니고 성부께서 주시는 성령을 성자가 받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려고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요한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부터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막 1:8).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신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 이루실 거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셨습니다. 왜 성자 예수께서 구하셔야 됩니까? 왜 성부께서 우리한테 직접 안 보내시고 성자를 통해 보내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세우실 때 목표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모든 더러운 것 특히 우상숭배의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겔 36:25-28).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참 언약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데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이 왜 안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계시는 주님, 곧 낮아지신 주님이 보내실 수 없고 높아지신 주님,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신 주님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다음 하늘로 가셔서 곧바로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는 금방 알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행 2:33).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시는 일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소개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5-26).

지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나중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고 보니 한 마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를 주시겠다 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는 “사랑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뒤에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요 14:21). 조금 뒤에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 14:23).

같은 말씀을 거꾸 세 번을 하시면서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을 위해 오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고전 12:3).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돈 몇 푼 주듯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쏟아 부어 주십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쏟아 부어 주십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롬 5:6-19).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 3:5-8, 16).

우리가 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성령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내리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의 계명을 따라 이웃도 사랑하게 도와줍니다.

사랑은 위로 올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 사랑의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엡 1:13, 14).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니다. 자녀 기르기가 어렵지요? 교육의 원리나 방법이 참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랑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 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말씀을 순종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 계명대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자 했는데, 사는 게 뭐니까? 사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밥 잘 먹고 숨 잘 쉬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데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겁니다 (계 3:1).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셔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산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고 나니 이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롬 8:1-14).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부전자전, 곧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도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못 할 때도 좋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기도 대상도 나 중심이고 내용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성령으로 살자

그럼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니까? “무엇으로 산다” 할 때는 살아가는 수단, 사는 방법, 삶의 원리, 원동력, 이런 걸 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물건도 아니고 원리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우리를 도우려와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뭔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내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본 진리를 먼저 깨닫지 못하면 구체적인 방법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기교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의 증보로, 예수님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알자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각오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성령이 오시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신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마 16:24; 막 8:34; 눅 9:23).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나를 사랑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삶을 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으니,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니 가능합니다.

사랑의 삶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원리를 먼저 분명하게 다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도 되고 지혜도 되고 지침도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쟁이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먹은 걸 알 수 있는데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셔도 느낄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오순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에 와 계십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성령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고 시작하면 내 삶이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고 그러면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간단히 줄이면 그냥 사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살자 하는 말이요 간단히 줄이면 “살자” 죽지 말고 살자 하는 말입니다. (권수경 목사)